

착한커피 한모금, 공정세상 위한 큰 걸음입니다

동티모르 공정무역 '피스 커피' 개척자 양동화 YMCA 국제팀장

“평화의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로푸드 마을 사람들의 삶을 더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커피를 만들어 내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동티모르 공정무역 '피스 커피(Peace Coffee)' 개척자로 더 잘 알려진 양동화(34) 한국YMCA 국제팀장이 광주를 찾았다. 양 팀장은 지난 15일 동구 남동 예술공간 '메이홀'에서 '착한커피의 착한소비'를 주제로 지난 5년간 현지에서 지내왔던 생활과 커피 생산자들의 삶과 도전, 희망을 소개했다.

순천에서 나고 자란 그가 동티모르라는 아시아 신

생국립과 인연을 맺게 된다는 항상 어려운 이들을 도와왔던 생활 습관이 크게 작용했다.

“6년전 순천YMCA에서 평화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YMCA에서 동티모르 지원사업 소식을 듣고 솔깃했어. 바로 자원했죠.”

양 팀장이 간 곳은 동티모르의 수도 사메에서 6~7시간 더 들어가야 하는 산골 로푸드 마을 가부라키 마을이었다. 사메에서 로푸드 마을까지는 124km 거리에 불과했지만 길이 험해 NGO단체나 정부도 버린 마을로 통했다.

“이 마을에는 윈시림에 커피가 그냥 열리는 대로 자라는 대로 있어요. TV나 사진으로 보아왔던 가지런하게 자라나는 커피나무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지요. 유기농을 넘어 야생이라고 보면 돼요.”

커피 수확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내 일처럼 작업에 나선다. 대부분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나 아이이지만, 커피를 판매하고 나서부터는 젊은이들이 속속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

익은 열매를 따서 껍질을 벗긴 후 씻고 말리는 과정, 불량품을 골라내고 사메에 지은 공동 가공장에서 가공하는 과정까지 5개월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전량 한국에 들어온 커피는 1년에 겨우 30t에 불과하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100% 수작업으로 '착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 낸 커피를 '공정한 값'을 치르고 사들

여 '공정한 값'으로 파는 게 양 팀장의 임무이자 한국 YMCA의 역할이다. '피스커피'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이 커피는 동티모르 오지마을 농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동티모르 공정커피를 '착한 커피'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

5년간의 험준한 동티모르 생활을 마감하고 지난해 4월 귀국했던 그는 9개월만에 다시 동티모르행을 결정했다. 오는 25일 출국한다는 그는 “앞으로 2년동안 '마을안의 작은 기업'을 구제와 시켜 한국YMCA가 손을 떼더라도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돌아오겠다”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로푸드와 가부라키 마을에서 생산되는 '착한커피'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글·사진·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동구-전남대병원 응급관리 사업협약



광주시 동구(구청장 노희용)는 최근 전남대학교병원과 응급관리 사업협약을 갖고, 폐소생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주민들 가정에 설치하기로 했다. <동구청 제공>

건강관리협, 지적장애인 무료 건강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본부장 강선규)는 최근 '사랑모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적장애인 20여명에게 혈압, 소변, B형 간염 등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제공>

전남옥외광고협 광양시지부 장학금 200만원



사단법인 전남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부(대표 이승재)가 16일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광양시 제공>

“서남해 황금어장 우리 손으로 지킵니다”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중 어선단속 현장지휘

“한번 내린 그물에 3억 7000만여치의 조기가 걸려 나올 정도로 풍어를 이룬 서남해 황금어장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김수현(56)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입버릇처럼 '해양영도 수호'의 중요성을 외친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업무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경비 중인 3000t급 경비정에서 할 정도로 의지가 대단하다. 지난 1981년 경찰간부후보(29기)로 선발을 내디딘 김 청장은 조직내에서 '해양경찰의 산 안사'로 불릴 정도로 책임감이 투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청장은 어민의 소득원인 어족자원을 흠치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어선의 조업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 4~6일과 26~28일에 이어 15~17일 세 번째 릴레이 중국어선 특별 단속 현장을 총지휘하고 있다. 경비함정, 헬기, 특공대원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대규모 단속을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연달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그는 부임 이후 강력한 단속 이외도 기상 악화 시 긴급 피난 중국어선 감시 체계도 강화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조업 중 선원이 다치거나 위급한 상황에 부닥치면 국적에 관계없이 신속한 이송과 구조를 직원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실제



김수현(56·왼쪽에서 두 번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15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한 대형 경비정에서 중국어선 특별 단속에 나선 직원들을 현장 지휘하고 있다. <서해해경청제공>

서 물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김 청장은 긴급 피난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피한 기간 경비정을 근접 배치, 철저한 보호 감시를 하도록 조치했고, 이후 긴급 피난 이후 불법 조업은 눈에 띄게 줄었다.

김 청장은 “힘이 남아 있는 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온몸을 바쳐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로 지난 14일 새벽 2시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22km 해상에서 침수 중인 중국선적 150t급 쌍터망어선 노영여 57099호 선원 14명을 전원을 구조했다. 침수 어선은 배수 작업 후 인근 항으로 예인하는 등의 인도적인 조치를 했다.

김 청장은 “힘이 남아 있는 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온몸을 바쳐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조선대교수관 학장 무료 연청이 수술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관 학장이 연청이 및 안면기형, 뿌피성형 무료수술 사업을 시행한다. 뿌피성형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톡스나 필러를 이용해 주사요법으로 성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원)은 1994년부터 경제사정이 곤란한 광주·전남 지역의 구순열 및 구개파열, 뿌피성형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수술을 해왔다. 올해는 광주·전남 지역의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2월 18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 선정하며, 개별 통보한다. 문의 (062)230-6860.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북성중 총동창회장에 김정석씨

북성중 제31대 총동창회장에 김정석(61) 광성타를 대표가 취임한다. 북성중 17회 졸업생인 김 신임 회장은 “단합과 친목으로 발전하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은 18일 오후 6시30분 광주프라도호텔 연회장.



서강·서정학원 김상우 이사장 별세

학교법인 서강·서정학원 김상우 이사장이 1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서강학원은 서영유치원·서강중학교·서강고등학교·서영대학교를, 서정학원은 서정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김상우 이사장은 지역 인재양성에 지속적인 공로를 해왔고, 현재 광주·수도권에 서정대학교와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로 육영의 영역을 넓히는 등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 김 이사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혁신 공로 봉행장, 국민훈장 석류장 대통령표창, 21세기 여성발전위원회 제5회 국민모범인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장남 김홍용씨(서정대학교 총장)와 정수씨(서영대학교 총장)가 있으며, 딸 영숙, 민숙, 남희씨 등이 있다. 장례는 학교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광주광역시 서구서정동 장례식장 특실이다. 발인은 17일 오전 5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담양 '얼굴없는 천사들' 나눔 바이러스

30대·70대 남성 주민복지실 찾아 기부 줄이어

담양군에 익명의 기부가 잇따라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선물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3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주민복지실을 방문해 5만 원권 지폐 100장을 2개로 묶은 총 10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했다. 광주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 남성은 “담양 지역에 도움이 됐으면 해 기부하게 됐다”며

“자신을 밝히지 말고, 추후에도 알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부탁하며 급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날 전라북도에 사는 한 70대 남성이 역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화로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남성은 “젊었을 때 전국을 무전여행을 하다 담양군 무정면의 한 민가에서 손목시계

를 들고 나왔는데 생활에 쫓겨 지금까지 갖지 못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이어 “나이 80이 되어서 그분을 찾을 수가 없지만, 담양은 내 기억 속에 아름답고 은인 같은 곳으로 남아있다”며 “50여년 전에 누군지 모를 담양 주민에게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관내 한 주민은 연말연시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익명으로 200만 원의 성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채 홀연히 사라졌다. 담양군 관계자는 “익명의 기부천사들의 소중한 뜻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 ▲김인식(창인전력 대표이사)·김귀례씨 차남 창현군 이용주·김정자씨 장녀 효선양=19일(토) 낮 12시 프라도 호텔 2층(광주시 남구 백운동)
- ▲김종삼(광주 법무사)씨 장남 경국군 이순근씨 장녀 은희양=19일(토) 낮 12시 40분 광주 힐라데이인 호텔 3층 로즈층.
- ▲유옥진(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씨 장녀 미혜양 김선홍·방성자씨 차남 태한군=20일(일) 오전 11시 50분 웨딩의 전당 금호 30층 아시아나홀.

동창동문회

- ▲북성중 31대 총동창회장(회장 김정석)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회=18일(금) 오후 6시 30분 프라도 호텔 연회장 062-654-9999.
-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

주여상고·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김형운)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22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상록회관 4층 062-361-2680.

중친회

- ▲전주리씨 광주·전남 지원 각파 중 회장 간담회(지원장 이달우)=17일(목)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3층 062-225-5636, 5631.
- ▲전주리씨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회 1월 월례회 및 정기총회 회장(이보희)=22일(화)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3층 062-225-5636, 5631.

알림

- ▲한중문화교류회 중양회 1월 월례회 및 임원회의=18일(금) 낮 12시 청명회관 062-652-8800.
- ▲무로 말교울상담=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광주요한알코올상담센터 062-526-3370, 510-3370.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분들을 도와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대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먼저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앰프 등) 무상대여. 접수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모집

-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탁! 어린이 재단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 ▲동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이미 봉사자·봉사아트·도서관리·각종 프로그램 진행 가능자 062-228-1365.
- ▲어름방학 자원봉사프로그램 참

가자=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 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학습 및 활동, 초·중·고 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 ▲조기축구 회원=운동으로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하실분 모집. 문화초등학교 오전 6시~7시 011-641-0741(손철동)
-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및 활동, 초·중·고 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 ▲축령산 지킴이 회원=장성 축령산을 공유하고 편백의 숲을 지키실 40~50대 회원 011-646-3577.
-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010-2727-1282.
- ▲수침초교 야구부 2·3·4학년=전

국소년체전 광주 대표선발 010-6634-5300.

부음

- ▲선유금씨 별세 운영상·정현·덕연·현·병현(강진군청)·행남·형숙씨 모친상 김영표(산한은행)씨 빙모상=발인 1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 ▲이순준씨 별세 조영선·영옥·영식·영일·영주·영순·영심·영숙씨 모친상=발인 17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 ▲이재찬씨 별세 정춘·정환·정현·춘자·희숙·춘민·춘옥씨 부친상=발인 17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발인 1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

를 들고 나왔는데 생활에 쫓겨 지금까지 갖지 못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이어 “나이 80이 되어서 그분을 찾을 수가 없지만, 담양은 내 기억 속에 아름답고 은인 같은 곳으로 남아있다”며 “50여년 전에 누군지 모를 담양 주민에게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관내 한 주민은 연말연시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익명으로 200만 원의 성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채 홀연히 사라졌다. 담양군 관계자는 “익명의 기부천사들의 소중한 뜻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謹 尙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윤장심 (여/88세) 女/婿: 고수자/정성래 孫: 정영국, 경운, 나경 •호상: 401호 장자: 영락공원	故김추예 (여/93세) 子: 박경숙 女: 박민희/김서근 孫: 박성준, 수연, 기성 •발인: 1월 18일 장자: 영락공원
故정성호 (남/64세) 子/子婦: 정명철/이혜진, 명호 女/婿: 정영희/고정수 •호상: 101호 장자: 영락공원	故박순금(여/74세) 子/子婦: 김만수/조성자 女/婿: 김영주/박태호/정희철 •호상: 102호 장자: 영락공원
故유홍호 (남/66세) 子: 유홍균 女: 유근영/심정남 유주/김창욱/진희이주원/근영/임동철 •복상: 301호 •발인: 1월 17일 •장자: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2 <p>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p>	